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일자리 창출이 새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였다. 외형 지표상으로 3%대의 양호한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고용 상황은 갈수록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까닭이다. 우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7.3%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 실업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고용의 질도 저하하고 있다. 임금 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수도 늘고 있다. 구직 단념자는 2002년 7만 명 선에서 2003년에는 9만 명, 2004년 11월 현재로는 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구직 단념자 중 여성 비율이 2002년 39.1%에서 2004년에는 46.0%로 확대되어, 여성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고용 사정으로 인해 체감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까지 한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의 가속으로 장기 실업자를 양산하고 청년층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전락시켜 우리 사회의 꿈과 활력을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내 고용 불안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해준다. 우선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내 노동 시장에 해마다 유입되는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 이상의 성장률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투자 정체 등에 의해 4%대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과 같은 이른바 '괜찮은 직장'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도 청년들의 취업 재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산업 구조 변화로 국내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져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공장 자동화, IT 산업 발전 등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소프트화가 진전되어 국내 제조업의 취업 유발 계수가 1980년에 10.3명에서 2000년에는 2.3명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1.3명으로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대형 할인점과 같은 유통 산업의 발전에 의한 상품 가격의 하락 추세도 기업들의 경비 절감 노력을 가속화시켜 고용 효과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도 문제다. 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근로 의식 약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과 근로자들의 고학력화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 업종이나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고용 불안은 국내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구조 변화와 근로 의식 약화가 결합되어 있어 단기간 내 치유하기 힘든 고질병이 될 우려가 있다.

고용 불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만 양산하여 사회 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일시적 일자리 수 늘리기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실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우량 직장'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려야 한다. 이는 일단 대기업의 투자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데 기업이 오로지 자기 책임하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규제적 발상을 전환하여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국내 기업 10개를 더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는 재원과 각종 지원 수단을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면, 자원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실추된 근로 의식을 다시금 고양시켜야 한다. 지금의 우리 경제를 일구어온 '잘 살아보자'라는 억척스러운 진취적 기상이 되살아나야, 우리 경제 각 부문에 인적 자원이 고루 분산되어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 활력이 솟아날 것이다. 우리 교육이 현실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보다 진취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지닌 인재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